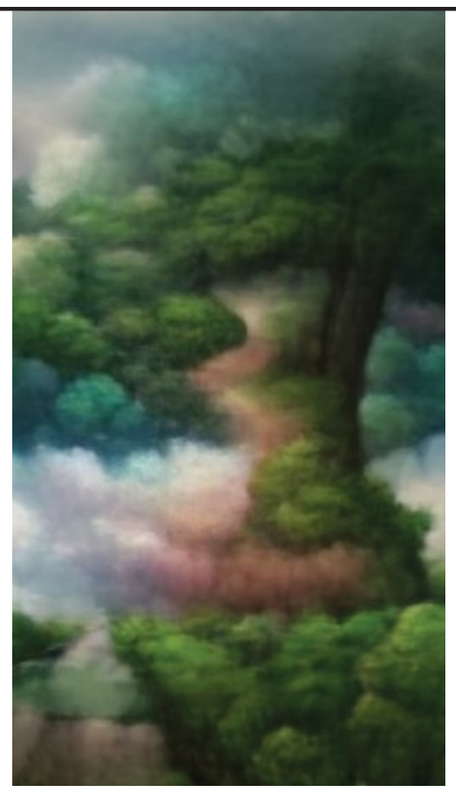
‘아트플랫폼 온-예술교차로’
광주·이스라엘·벨기에 등
다양한 장르 47명 작가 참여
8~16일 미로센터 등 4곳
9일 컨퍼런스도 진행

알렉산드라 데멘티에바 작
‘The Messive interactive ta A’



벨기에 작가 공동 작품
‘Safe As Milk’

# 5개국 작가들이 전하는 환경과 예술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꾸준히 해외 교류를 진행해온 (사)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노정숙 대표는 지난 2015년 세계 각국의 큐레이터를 만났다. 그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비엔날레에 한국측 큐레이터로 참여했던 그는 당시 행사를 함께 꾸렸던 각국의 공동큐레이터들과 인연을 이어갔다.

코로나 19로 대면 만남이 불가능해지자 노 대표는 “인터넷 상에서 문화로 놀아보자”는 취지로 지난해 5개국 기획자 공유 플랫폼 ‘아트플랫폼 온(on)’을 열었다. 온라인 모임은 판이 커지면서 프랑스, 이스라엘 등 5개국 기획자와 작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로 확장됐고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다. 내년에는 이스라엘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트플랫폼 온-예술교차로’가 광주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 등 4개 공간에서 8일부터 16일까지 동시에 펼쳐진다. 오픈행사 8일 오후 5시 미로센터.

‘예술&환경=CROSSING’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5개국 47명의 작가가 참여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토대로 새로운 예술을 제안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새로운 미디어 실험과 혼합매체를 활용해 환경미술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환경과 교차하는 현대미술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기회다.

현재 작가로도 활동중인 기획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각국의 큐레이터들은 전시 주제에 맞는 자국의 작가들을 이번 전시에 초대했다.

참여작가들은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4개의 전시에 참여한다. 미로센터에서는 ‘미로, 거미, 나무, www닷컴’을 주제로 전시가 열리며 갤러리 생각상자의 전시 주제는 ‘우리가 본 것처럼’이다. 전남대학교 박물관(역사관)에서는 ‘그리고 다시, 그래서 이르렀다’를 주제로 한 작품이 전시되며 이이남 스튜디오에서는 ‘언제나 함께’라는 테마로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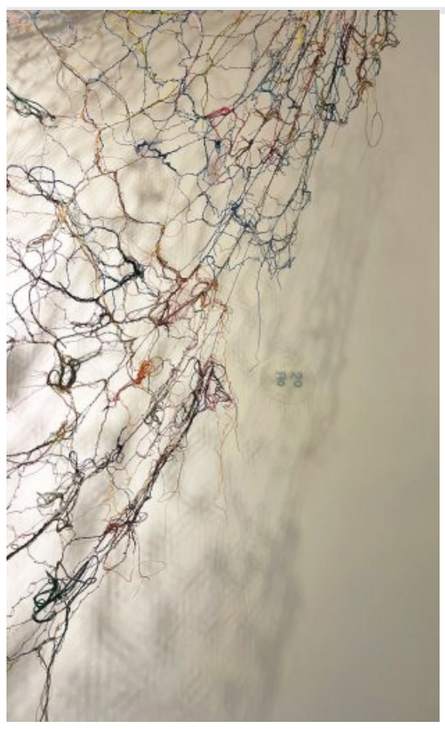
이번 전시 ‘예술교차로’의 총기획을 맡은 이유진씨는 ‘함께 하기 그리고 함께-되기’라는 글에서 “이번 전시가 현대미술의 방향성, 환경과 예술의 상호관계성, 문화예술의 회복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정재엽·이이남·오상조·최재영·정운학·노정숙·류미숙·김혜숙·주라영·노은희·이호동·김영태·김창호·박문종·변경섭·이계하·주홍·임정은 작가가 참여했다,

몽골의 숄룽고 채후는 인간의 오감, 특히 우리가 세계와 환경에 연결됨을 느낄 때의 감각을 대변할 작가들로 아머르바트 오용빌릭 등을 초청했다.

프랑스의 피에르 게랑은 오늘의 세상과 내일을 보는 다양한 시선을 보여줄 뤽 티부흐, 레미 부아노 등 5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이스라엘의 나탈리야 카메레츠카야는 개인의 변화, 서사, 기억에 따라 각기 다른 미학과 신념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벨기에 알렉산드라 데멘티에바는 예술과 교육이 환경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함을 이야기하며 작가를 추천했다.

9일 오후 2시 미로센터 2층 미로 라운지에서는 ‘예술의 브릿지, 지구 환경과의 관계’를 주제로 컨퍼런스도 열린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5명의 기획자가 발제자로 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유진 작 ‘공생’

## ‘영혼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 강동아 큐레이터, 고유진 작가 전시 기획…12일까지 오버랩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전시회를 꾸리는 데는 큐레이터의 역할이 크다.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OverLab)’이 꾸준히 지역 큐레이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독립큐레이터 협업(ICC·Independent Curator Collaboration’을 운영하는 것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다.

올해 오버랩 ICC 프로그램 참여자 강동아 예비큐레이터가 결과물 발표회를 오는 12일까지 오버랩(광주시 남구 구성로 76번길 5-4) 에서 열리다.

‘영혼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그는 ‘실’을 재료 삼아 섬유·직조 작업을 하는 고유진 작가를 초대해 전시회를 꾸렸다. 고 작가는 ‘실’의 물리적 특징을 기반으로 관계, 타인에 관한 주제로 작업하며 타자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삶을 환기한다.

대학원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하는 강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의 행위는 여러 면에서 모든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려 한다.

그는 “하나의 사회를 보여주는 듯한 직조 공간 안에서 관계의 구조를 사유하는 고유진 작가의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려한다”며 “더불어 자연스럽게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도 함께 상상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에는 아티스트 토크도 열렸다. 문의 062-351-225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제 1회 단청과 천자문의 만남전’

### 8~9일 광주 서구문화센터 갤러리

천자문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한 번쯤 써보려는 마음도 갖지만 전체를 모두 써보기란 쉽지 않다. 특히 붓글씨로 한글자 한글자 써내려가는 건 끈기가 필요한 일이다.

‘천자문의 예술 세계-제1회 단청과 천자문의 만남전’이 8~9일 이틀간 광주 서구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사경의 권위자인 정향자 작가가 농성문화의 집에서 진행한 강좌 수강생들이 참여한 기획으로 전금례·김진국·정청자·최인숙·정순애씨 등이 작품을 내놓았다.

정 작가는 단순한 천자문 쓰기에 머물지 않고 수강생들이 좀 더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천자문과 함께 전통적인 단청, 오방색과 고사성어의 만남을 기획했다.

정향자 작가는 “지류(紙類) 문화재를 모사복원하는 것은 문화재를 영구 보존하는 방법의 하나”라며 “수강생들은 서예공부와 더불어 단청을 그려 소박한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소정 작
‘천자문’

K아트 공연모습. 〈K아트 제공〉

## 렉처콘서트로 만나는 글룩의 오페라

### K아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공연…1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독일 작곡가 글룩의 오페라 개혁 선언곡을 강연과 함께 우리네 언어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클래식 연주단체 K아트는 1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렉처콘서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공연을 연다.

광주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 활동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공연에서는 독일 출신 작곡가 글룩의 오페라를 감상해볼 수 있다. 글룩은 바로크 시대 화려한 기교에 치우친 오페라에서 벗어나 음악과 극의 조화를 추구하는 오페라 개혁을 주장했던 작곡가다.

이날 선보이는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글룩이 오페라 개혁을 선언한 이후 내놓은 작품으로 오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로 손꼽힌다.

특히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하고, 오페라에서 가사와 대사 부분을 우리말 나레이션으로 각색해 보다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다.

강연에서는 박승유 K아트 예술감독이 그리스 신화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서양음악 세계관과 음악관련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박씨는 유학시절 그리스에서 경험한 그리스 철학이 모든 개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였다며 관객들로 하여금 강연과 공연을 통해 음악과 예술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무료초대로 진행되며 예약(https://url.kr/rpyosj)해야 한다. 공연문의 010-8537-8844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남편 없는 부두’ 연습 장면. 〈ACC 제공〉

## 전쟁…베트남 여성의 삶은 어땠을까

### ACC, ‘남편 없는 부두’ 시범 공연…12~13일 예술극장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여인들이다. 특히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들은 집안의 가장이 돼 가사를 책임져야 하고 나머지 자식들을 키워야 한다.

전쟁을 배경으로 강인한 여성의 삶을 그려낸 연극이 무대에 올려진다.

특히 이번 연극은 베트남 국민소설 ‘남편 없는 부두’를 한국의 창작진과 배트남 배우들 간의 협업을 통해 연극으로 재창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베트남국립극장 소속 배우 13명이 베트남어로 연기하고 한국어 자막을 제공한다. 원작은 베트남 작가 쯔엉 흐엉의 동명 소설 ‘남편 없는 부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은 오는 12~13일 ‘남편 없는 부두’ 시범 공연을 연다. ACC 예술극장 극장1.

이번 공연을 위해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 사업에 선정된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와 베트남 문화체육부 소속 베트남국립극장이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했다.

연출은 ‘번지점프를 하다’, ‘파리넬리’ 등을 연출한 김민정이, 극작은 ‘영웅’, ‘왕세자실종사건’ 등을 집필한 한아름 작가가 맡았다.

창작진은 원작의 깊이는 물론 양국의 전통문화 등을 결합해 과거와 현재를 구현했다.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무대의 현재성과 작품 주제에 초점을 맞춰 시공간과 인물을 표현했다.

한편 이번 시범 공연에 앞서 공동제작을 맡은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와 베트남국립극장은 배역 선발 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베트남에서 제작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누리카드 신규 가맹점 발굴 이벤트 진행…12월 7일까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찾아 문화누리카드 담당자인 ‘누리에게’ 말해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7일까지 신규 가맹점 발굴 이벤트 ‘누리에게 말해줘!’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광주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장을 발견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성명·연락처·문화누리카드 사진·상호명을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 횟수는 제한 없으며 1인당 당첨 횟수는 3회로 제한된다. 신규 가맹점을 발굴한 응모자 중 75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광주문화누리 블로그(blog.naver.com/gjcfmunhwanur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4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